

노년기 부부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 이후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 변화*

Older Couples' Housework before and after Retirement

일본 히로사키대학 교육학부
준교수 이수진**

Faculty of Education, Hirosaki University, Japan
Associate Professor Lee, Sujin

〈목 차〉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 이후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KLoWF)1~7차년도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부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총 2,482명이 선정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가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인이 취업을 지속하면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남편이 취업을 지속하면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시점 간(t1시점과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t1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t2시점의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또한, 남편의 경우도 부인과 마찬가지로 t1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변동은 일시적인 시점의 영향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평일에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도 증가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면 부인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의 토요일, 일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평일에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과 평일의 가사노동은 교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노년기 부부,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 가사노동시간, 종단자료

〈Abstract〉

In this study, I analyzed how the hours and frequency of housework change after older couples' retire, using data from the 1st(2007) to 7th(2018) years of the Women's Family Panel (KLoWF) conducted at the Korea Women's Policy Research Institute. In this study, couples where both the wife and the husband were 65 years of age or older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A total of 2,482 people participate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as comparing between two time points, when the weekday housework hours of the wife and husband at t1 time point increased,

*본 연구는 2021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저자, 교신저자: 이수진(pourtant22@gmail.com), <https://orcid.org/0000-0001-6104-6967>

the weekday housework hours of the wife and husband at t2 time point also increased. Second, on weekdays, when the wife's housework increased, the husband's housework also increased. On the other hand, on weekend, when the wife's housework increased, then the husband's housework decreased on weekdays.

Key words: older couples', retirement, housework hours, panel survey

I. 서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생활 주기상의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역할 상실 문제 등 다양한 생활 문제를 경험하는 고령자에게 있어서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는 등의 취업상태 변화는 노년기의 중요한 라이프 이벤트이다. 따라서 노년기는 퇴직이라고 하는 노동시장 탈퇴 이후의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노년기 이후의 생활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탈퇴한 후에도 부부간 가사노동 부담이 조절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다고 하면 노년기는 생애 주기 중 어느 때 보다 성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노년기의 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혜, 2004).

한편, 남편 및 부인의 퇴직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새로운 생활주기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새롭게 맞이하는 생활주기는 가사노동을 비롯한 생활 구조의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 岡村(2006)는 부인은 남편의 퇴직을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위기로 지각한다고 지적하였다. 노년기 이전에는 남편은 직장 및 일에 대한 지향이 강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반면, 노년기에 남편이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면 남편의 주요한 생활 거점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옮겨지게 된다. 또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과 공동 행동을 증가시키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부부관계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橋本(2006)는 노년기의 가족적 과제 중 하나로 부부의 동반성 확대를 들었다. 노년기에 남편과 부인의 가사분담을 재정립하는 것은 부부 동반성의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가정 내에서 남편과 부인의 역할 구조에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사노동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노년기에는 노동시장 탈퇴 등 일자리 경험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적 역할 상실을 경험한다. 역할을 상실하는 단계에서

고령자는 그 적응 방법으로 가족에 대한 공헌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공헌의 장이 크면 클수록 퇴직 후의 만족감과 삶의 보람이 커지게 되고(若林 et al., 1991), 일과 가사분담을 어떻게 하는지가 퇴직 후의 인생만족감 및 행복감과 관련되어 있다(平山 & 柏木, 2001). 또한, 은퇴 후 소일거리가 없음에 대해 어려워할수록 은퇴 이후 생활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김주희 · 이기영 · 최현자, 2009). 또한, 퇴직은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고 따라서 가사역할에도 변화를 불러온다. 이로 인해 퇴직 후의 부부관계가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역할 상실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가사노동 변화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2015년 12월에 발표한 「길게 행복한 인생을: 동아시아 대양주 지역의 고령화」에서 동아시아의 고령화 규모와 속도에 주목하고 고령화에 동반된 사회적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애에 걸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世界銀行, 2015). 생애를 통한 관점에서 고령자의 생활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길어진 노동시장 탈퇴 이후의 생활에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퇴직 전후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종단조사에 의하면 퇴직 전부터 퇴직 후에 걸쳐서 가사 참가와 부부의 대화 시간, 부부의 공동 활동이 증대했다는 보고가 있다(東京都老人総合研究所, 1991; 岩井, 2004; 松田, 2004). 伊藤 & 相良(2012)는 남편의 가사분담이 60-70대의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퇴직을 계기로 남편의 가정생활에 대한 관여 수준이 높아짐을 추측할 수 있다.

퇴직 등의 일자리 경험의 변화는 단순하게 직업으로부터의 이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생활상의 이벤트이다. 또한, 개인이 퇴직 등으로 인한 취업상태 변화 전후로 생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를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단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년기 부부의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 이후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부인과 남편의 가사참여의 의미

퇴직을 하면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이 점차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 축소된 사회적 역할을 보완해 줄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노년기의 개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前田(2003)에 따르면 퇴직이 고독하고 따분한 인생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즉, 소속하는 조직과 직함이 없어진다는 부정적 이미지는 감소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증가하고 자기다움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증가하였다. 퇴직은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출발점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년기가 되면 생활의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노년기에는 가족적 역할을 확대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퇴직 후의 남성의 가족적 역할 수행의 대표적인 예로 가사노동을 들 수 있다.

伊藤 & 相良(2012)는 현역 세대와 퇴직 세대를 나누어서 부부관계 만족도, 수입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퇴직 세대에서 부부의 대화 시간과 공동행동이 증가하고, 남편의 가사분담이 증가하면 부부관계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으면 부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도 좋아진다고 하였다. 田中 et al.(2018)은 60세 이상의 유배우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년기의 남성과 여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남편 혹은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배우자 역할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노년기의 남성은 가사를 수행하거나 분담함으로써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역할수행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배우자 역할 인식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남편이 가사노동에 얼마큼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태도가 노년기 부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伊藤, 下仲 & 相良, 2009), 은퇴 이후에 남편의 가사분담, 공동 활동 등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은퇴 이전의 부부관계 만족도보다 높다는 결과도 있다(이주연·김득성, 2015).

남편의 은퇴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김수진과 고선강(2018)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수행능력, 가사노동 분담 정도는 남성의 부부 관계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부부관계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남편의 가사참가는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이지만,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저하시킨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木下, 2004). 김영혜(2004)에서는 6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 분담의 일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 모두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가사노동 분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 노인들이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가사분담의 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2. 노년기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사노동 배분에 관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가사노동 배분에 관한 이론은 크게 상대적 자원가설, 시간가용가설, 요구반응가설, 성역할태도 가설의 4가지로 구분된다. 노년기에 노동시장으로부터 탈퇴할 경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취업상태 변화로 인한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므로 시간가용가설에 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 참여를 분석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중년층 보다 남편의 가사참여 시간이 길다고 보고하고 있다(이현아·김주희, 2021; 国立社会保障 & 人口問題研究所, 2008; Iwai, 1998; 안미영, 2017; 田中 et al., 2018; 不破, 2014)

이현아와 김주희(2021)는 기혼남성을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로 구분하고 이들의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베이비붐세대의 가사노동시간은 44분으로 Y세대의 가사노동시간인 104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임을 제시하였다. 남편의 가사참여가, 30대보다는 40대 및 50대에서 줄어들고, 다시 60대에서는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国立社会保障 & 人口問題研究所, 2008; Iwai, 1998).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밝혀낸 연구들이 있는데, 남편과 부인 모두 부인의 가사노동이 남편이 비해서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田中 et al., 2018). 누가 더 많이 가사노동을 담당하느냐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남편이 퇴직한 이후 혹은 이어지는 노년기에는 남편의 가사노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岩井, 2004; 松田, 2004).

한편, 가사노동시간의 증가와는 별도로 가사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연구들이 있다. 즉 퇴직한 남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보다 많은 가사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적 가사에 한정된 것이 많다고 하였다(Myers & Booth, 1996). 또한, 65세 이상의 응답을 보면 가정 내 가사의 총 60% 이상을 부인이 담당하고 있는 가사분담 상황을 알 수 있으며(不破, 2014), 6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166.4배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안미영, 2017). 김영혜(2004)는 가사노동 분담을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하던 가사노동, 주로 부부가 비슷하게 하는 가사노동, 남성들의 참여가 비교적 높은 가사노동으로 나누어서 누가 그 일을 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던 가사노동은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부인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한 여성이 여성적 가사를 더 많이한다는 결과가 있다(Szinovacz & Harster, 1994). 부인이 퇴직을 하면 남편의 여성적 가사의 분담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zinovacz, 2000).

다음으로 남편과 부인의 퇴직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면, Kim & Lee(2018)은 여성가족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50-64세의 중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퇴직 전후의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하였다. 50-64세의 중년층 남편의 퇴직은 부인의 가사시간을 줄이고, 남편의 가사시간과 남편의 가사분담시간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남편의 퇴직과 남편과 부인의 가사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4세 중년층 부인의 퇴직은 남편의 가사시간을 줄이고, 부인의 가사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부인의 퇴직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乾(2015)는 노년기의 남편과 부인의 가사시간과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장 참여 및 탈퇴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남편은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지만, 부인은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閔根(2017)는 70세 이상의 노년층 여성의 가사시간이 다른 연령층의 여성보다 짧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부부와 미혼자로 구성된 세대보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에서 부인의 가사관련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2)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관계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동시에 들어난다는 연구(최유정·최미라·최선희, 2019; 김영란·이진숙, 2020)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공존한다(久保, 2017; 乾, 2015).

본인과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의 관계가 동시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돌봄 노동시간이 길수록, 여성의 가정 내 역할 수행시간이 증가하고, 남성은 배우자의 돌봄 노동시간이 길수록 가사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최유정 외, 2019). 김영란과 이진숙(2020)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함을 밝혀냈다.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과 부인의 가사노동이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결과도 있다. 久保(2017)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빈도가 높은 경우에 부인의 빈도가 낮으므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설거지에 있어서 남편이 담당함으로써 부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노년기의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한 乾(2015)의 연구에서도 부인의 가사노동 빈도가 늘어나면 설거지, 시장보기, 세탁, 청소 등의 빈도에 있어서 남편의 가사노동 빈도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3)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와 가사노동시간의 관계

취업상태가 변화하면 노동시간도 변화하게 되므로 본 절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한정된 시간에서 노동시장 참여와 가사노동시간을 배분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늘면 가사노동시간 줄어드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남성의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부적인 관계에 있다(허수연, 2018; 허수연·김한성, 2019; 은기수, 2009; 이창순, 2014). 노년기에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였고(안미영, 2017), 남편이 일하고 있으면(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무직인 경우보다 남편의 식사준비빈도, 식사후 처리, 시장보기, 세탁 등의 빈도가 줄어들었다(乾, 2015). 여성의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도 부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혀졌는데 김효정(1996)은 아내의 노동시간이 길면 아내의 식사관리에 참여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근로시간과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남편의 노동시간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부적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최유정 외, 2019; 안미영, 2017; 乾, 2015; 이미숙·유안진, 1997). 즉, 남편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여성의 가정내 수행시간 증가하고(최유정 외, 2019),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도 남편의 노동시간이 짧으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다(안미영, 2017).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빈도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乾(2015)는 노년기에 부인이 일하고 있으면(정규직, 비정규직) 무직인 경우에 비해서, 남편의 식사준비빈도, 식사후 처리, 시장보기, 세탁 등의 가사노동 빈도에 있어서 증가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미숙과 유안진(1997)의 연구에서도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남편에 비해 부인이 취업한 남편의 가사참여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

타났고,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가사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 전후 시기별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 전후 시기별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3.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분석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KLoWF)1~7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에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8년에는 2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3차년도 조사부터 격년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에 실시한 7차년도 조사 데이터까지 공개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은 1차년도 조사 당시 전국 대표성을 갖춘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부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총 2,482명이 선정되었다. 가사노동은 가사일과 돌봄 노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인과 남편의 가사일에 관련된 가사노동 분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

서,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이며,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돌봄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풀링하여 남편과 부인의 취업상태 변화를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t1시점 일자리와 t2시점의 일자리를 조합하여, '취업에서 미취업', '취업지속', '미취업지속',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취업상태별로 t1시점과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상태 변화가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변수의 측정방법

변수의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가사노동시간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한 응답을 분으로 환산하였으며,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에 대한 응답, t1시점과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을 각각 산출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는 '식사·요리준비',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쇼핑', '집안 청소' 항목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음'(0점), '일주일에 1일보다 드물게'(1점), '일주일에 1일'(2점), '일주일에 2-3일'(3점), '일주일에 4-5일'(4점), '거의 매번'(5점)으로 코딩한 후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하는 남편에 대한 변수는 여성 응답자가 응답한 배우자 정보를 토대로 변수화한 것이다.

<표 1> 변수의 측정방법

변수	측정방법
가사노동시간	'귀하와 귀하의 남편은 집안일(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분으로 환산.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에 대한 응답을 활용. t1시점과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을 각각 산출.
가사노동 빈도	식사·요리준비,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쇼핑, 집안 청소 항목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음은 0점, 일주일에 1일보다 드물게는 1점, 일주일에 1일은 2점, 일주일에 2-3일은 3점, 일주일에 4-5일은 4점, 거의 매번은 5점으로 코딩한 후 평균점을 계산함.
취업상태 변화	t1시점과 t2시점의 취업상태의 조합. '취업에서 미취업', '취업지속', '미취업지속', '미취업에서 미취업'으로 구분.
연령	부인과 남편의 연령을 변수로 활용. 부인과 남편 모두 65세 이상.
교육 수준	부인 학력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이상'으로 구분. 남편 학력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
부인 성별역할 분업의식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측정. 분석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으로 역코딩하여 사용.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취업상태 변화를 ‘취업에서 미취업’, ‘취업지속’, ‘미취업지속’,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구분하였다. 부인의 취업상태 분포를 보면, ‘취업에서 미취업’은 5.0%(114명), ‘취업지속’은 47.9%(1,093명), ‘미취업지속’은 44.3%(1,100명), ‘미취업에서 취업’은 2.8%(63명)이었다. 남편의 취업상태의 분포를 보면 ‘취업에서 미취업’은 8.8%(200명), ‘취업지속’은 49.9%(1,139명), ‘미취업지속’은 36.6%(834명), ‘미취업에서 취업’은 4.7%(1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부인의 특성과 남편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부인의 연령은 평균 68.3세, 남편의 연령은 평균 72.2세였다. 교육 수준은 부인의 경우 약 66%가 초졸 이하의 학력이었다. 남편의 경우 초졸 이하 학력이 42.4%, 중졸 23.4%, 고졸 24.8%, 대졸 9.4%였다.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는 ‘식사·요리준비’, ‘설거지’의 빈도 평균은 각각 4.9점, ‘집안 청소’의 빈도 평균은 4.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식사관련 가사노동을 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은 다섯 가지 가사노동 항목 모두 평균 1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을 보

면 부인과 남편 모두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t1시점, t2시점 각각, 부인과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부인이 남편의 약3배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t1시점, t2시점 각각, 부인과 남편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보다 약 6배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나, 평일보다는 주말에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별 가사노동시간

취업상태 변화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먼저, 부인의 취업상태 변화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는 〈표 3〉의 상단에 제시하였다. 부인이 ‘취업에서 미취업’인 그룹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132분에서 139분으로 증가, 토요일은 116분에서 129분으로 증가, 일요일은 115분에서 125분으로 증가하였다. 즉, 부인이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하면서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특히, t1시점과 t2시점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지속’인 그룹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요일에는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부인		남편	
	빈도(%)/평균(SD)			
연령	68.3(2.6)		72.2(3.8)	
교육수준	초졸이하	1,635(65.9)		1,050(42.4)
	중졸	501(20.2)		580(23.4)
	고졸이상	346(13.9)		613(24.8)
	대졸이상			233(9.4)
가사노동 빈도	식사·요리준비	4.9(0.6)		1.0(1.5)
	설거지	4.9(0.6)		1.1(1.5)
	세탁	3.8(1.1)		0.8(1.2)
	시장보기·쇼핑	2.7(1.4)		1.0(1.1)
	집안 청소	4.2(1.1)		1.5(1.6)
가사노동시간	t1시점 평일 가사노동	145분		24분
	t1시점 토요일 가사노동	132분		17분
	t1시점 일요일 가사노동	131분		19분
	t2시점 평일 가사노동	146분		24분
	t2시점 토요일 가사노동	133분		17분
	t2시점 일요일 가사노동	132분		19분
취업상태변화	취업에서 비취업	114(5.0)		200(8.8)
	취업지속	1,093(47.9)		1,139(49.9)
	비취업지속	1,011(44.3)		834(36.6)
	비취업에서 취업	63(2.8)		108(4.7)
부인 성별분업의식	2.7(0.8)			
N			2,482(100)	

131분에서 136분으로 5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미취업에서 취업’인 그룹은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152분에서 142분으로 감소, 토요일에는 144분에서 130분으로 감소, 일요일에는 142분에서 128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을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감소폭은 14분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지속’인 그룹은 t1시점과 t2시점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표 3>의 하단에 제시하였다. 남편이 ‘취업에서 미취업’인 그룹에 있어서 t1시점과 t2시점의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평일 150분에서 149분으로, 일요일 133분에서 128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요일에는 5분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편이 ‘취업지속’인 그룹의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토요일, 일요일에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토요일은 133분에서 138분으로, 일요일은 132분에서 139분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미취업에서 취업’인 그룹은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평일은 137분에서 143분으로 증가한 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125분에서 114분, 123분에서 117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남편이 ‘미취업지속’인 그룹은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별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남편이 ‘취업에서 미취업’인 그룹은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남편의 평일과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각 평일은 23분에서 25분으로, 토요일은 15분에서 18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남편이 ‘미취업에서 취업’인 그룹은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35분에서 30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취업에서 취업’인 그룹은 일요일의 가사노동이 22분에서 24분으로 증가 하였으나 이 역

<표 3>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 전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증감

(단위 : 분)

		취업에서 미취업	취업 지속	미취업 지속	미취업에서 취업	
부인의 취업상태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평일	t1 시점	131.69	140.47	151.30	151.90
		t2 시점	138.61	141.96	151.20	142.10
		증감분	6.92	1.49	-0.10	-9.80
		t값	-0.939	-0.657	0.100	1.087
	토요일	t1 시점	115.73	131.61	134.34	144.29
		t2 시점	128.89	134.65	134.33	129.52
		증감분	13.16	3.04	-0.01	-14.77
		t값	-1.819 [†]	-1.373	0.041	1.263
	일요일	t1 시점	115.17	131.18	131.02	142.38
		t2 시점	124.95	135.71	131.67	128.1
		증감분	9.78	4.53	0.65	-14.28
		t값	-1.331	-1.868 [†]	-0.173	1.205
남편의 취업상태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평일	t1 시점	149.92	141.47	150.06	137.22
		t2 시점	148.86	143.65	148.58	143.34
		증감분	-1.06	2.18	-1.48	6.12
		t값	0.180	-0.943	0.469	-0.889
	토요일	t1 시점	134.08	133.32	131.60	125.31
		t2 시점	134.26	137.74	131.66	113.79
		증감분	0.18	4.42	0.06	-11.52
		t값	-0.033	-1.929 [†]	0.041	1.360
	일요일	t1 시점	133.00	132.24	128.86	122.78
		t2 시점	127.57	138.16	129.78	117.17
		증감분	-5.43	5.92	0.92	-5.61
		t값	0.926	-2.304 [‡]	-0.277	0.626

[†]p<.10, ^{*}p<.05, ^{**}p<.01, ^{***}p<.001

〈표 4〉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 전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증감

(단위 : 분)

		취업에서 미취업	취업지속	미취업지속	미취업에서 취업	
부인의 취업상태별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평일	t1 시점	24.92	23.21	24.24	22.06
		t2 시점	22.98	22.89	23.51	27.14
		증감분	-1.94	-0.32	-0.73	5.08
		t값	0.576	0.242	0.558	-1.159
	토요일	t1 시점	15.09	14.47	19.32	13.65
		t2 시점	16.93	14.71	17.77	23.65
		증감분	1.84	0.24	-1.55	10.00
		t값	-0.591	-0.243	1.241	-1.911 [†]
	일요일	t1 시점	17.63	15.22	22.68	14.13
		t2 시점	16.87	16.14	20.41	23.97
		증감분	-0.76	0.92	-2.27	9.84
		t값	0.269	-0.871	1.288	-2.101 [*]
남편의 취업상태별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평일	t1 시점	23.01	20.01	27.46	35.19
		t2 시점	25.20	20.37	26.01	29.55
		증감분	2.19	0.36	-1.45	-5.64
		t값	-0.648	-0.279	0.991	1.191
	토요일	t1 시점	15.25	13.29	20.52	24.35
		t2 시점	18.20	13.68	18.67	24.72
		증감분	2.95	0.39	-1.85	0.37
		t값	-1.127	-0.416	1.258	-0.095
	일요일	t1 시점	19.9	15.27	22.5	21.58
		t2 시점	19.6	16.07	20.22	24.26
		증감분	-0.30	0.80	-2.28	2.68
		t값	0.111	-0.807	1.118	-0.698

[†]p<.10, *p<.05, **p<.01, ***p<.001

시 통계적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인의 취업상태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증감은 〈표 4〉의 하단에 제시하였다. 부인이 ‘취업에서 미취업’인 그룹은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25분에서 23분으로 감소, 토요일은 15분에서 17분으로 증가, 일요일은 18분에서 17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증감은 통계적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부인이 ‘미취업에서 취업’인 그룹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평일은 22분에서 27분으로 증가, 토요일은 14분에서 24분으로 증가, 일요일은 14분에서 24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의 증가분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3.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별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

〈표 5〉에는 취업상태 변화별 가사노동 항목별 수행 빈도 차이를 제시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별 부인의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가 t1시점과 t2시점에서 차이가 있고 유의차가

인정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에서 미취업’인 그룹은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시장보기·쇼핑’의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속’인 그룹은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세탁’, ‘집안청소’의 수행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지속’ 그룹은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식사·요리준비’의 수행 빈도가 줄어들었고, ‘집안청소’의 수행 빈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쇼핑’도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수행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에서 취업’인 그룹은 ‘식사·요리준비’,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쇼핑’의 항목에서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수행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항목별 수행 빈도의 변화를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별로 살펴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별 남편의 가사노동 항목별 수행 빈도가 t1시점과 t2시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유의차가 인정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의 취업상

〈표 5〉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 전후 부인의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 증감

		취업에서 미취업	취업지속	미취업지속	미취업에서취업	
부인의 취업상태별 부인의 가사노동 빈도	식사· 요리준비	t1 시점	4.90	4.94	4.88	4.87
		t2 시점	4.84	4.93	4.84	4.95
		t값	0.961	0.535	1.790 [†]	-0.927
	설거지	t1 시점	4.81	4.93	4.83	4.86
		t2 시점	4.82	4.92	4.81	4.89
		t값	-0.212	0.571	0.901	-0.341
	세탁	t1 시점	3.78	3.87	3.82	3.79
		t2 시점	3.73	3.78	3.77	3.86
		t값	0.401	2.471 [†]	1.292	-0.393
	시장보기· 쇼핑	t1 시점	2.59	2.45	3.00	2.89
		t2 시점	2.84	2.50	2.98	2.95
		t값	-1.758 [†]	-1.102	0.522	-0.314
집안청소	t1 시점	4.10	4.26	4.31	4.16	
	t2 시점	4.02	4.17	4.20	4.03	
	t값	0.593	2.451 [†]	2.882 ^{**}	0.851	
남편의 취업상태별 부인의 가사노동 빈도	식사· 요리준비	t1 시점	4.86	4.94	4.89	4.86
		t2 시점	4.90	4.92	4.85	4.83
		t값	-0.776	1.172	1.693 [†]	0.320
	설거지	t1 시점	4.79	4.93	4.84	4.80
		t2 시점	4.87	4.91	4.81	4.81
		t값	-1.302	1.081	1.128	-0.113
	세탁	t1 시점	3.90	3.85	3.82	3.86
		t2 시점	3.98	3.77	3.73	3.77
		t값	-0.843	2.247 [†]	1.852	0.740
	시장보기· 쇼핑	t1 시점	2.91	2.50	2.95	2.89
		t2 시점	2.92	2.55	2.95	2.84
		t값	-0.099	-1.349	0.000	0.366
집안청소	t1 시점	4.27	4.28	4.28	4.16	
	t2 시점	4.37	4.18	4.13	4.06	
	t값	-1.045	2.939 ^{***}	3.263 ^{***}	0.761	

[†]p<.10, *p<.05, **p<.01, ***p<.001

태 변화별 남편의 가사노동 빈도를 보면, ‘미취업 지속’ 그룹은 ‘집안 청소’를 제외한 네 가지 항목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이 ‘미취업에서 취업’인 그룹은 남편의 ‘집안청소’ 수행 빈도가 1.35에서 1.8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차도 인정되었다. 부인이 ‘취업에서 미취업’인 그룹은 다섯 가지 가사노동 항목 모두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t1시점보다 부인이 미취업상태인 t2시점에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 빈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별로 보면 남편이 ‘미취업지속’인 그룹은 ‘집안 청소를 제외한 네 가지 가사노동 항목에서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가사노동 수행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

업지속’인 그룹은 ‘세탁’의 수행 빈도가 t1시점보다 t2시점에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이 ‘취업에서 미취업’인 그룹은 다섯 가지의 가사노동 항목 모두 취업하고 있는 t1시점보다 미취업상태인 t2시점에 비해서 가사노동 수행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미취업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설거지를 제외한 가사항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미취업에서 취업’인 그룹은 ‘집안청소’ 이외의 가사노동 항목의 수행 빈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이 ‘미취업에서 취업’인 그룹은 모든 가사 항목에서 수행 빈도가 늘어났다.

〈표 6〉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 전후 남편의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 증감

		취업에서 미취업	취업지속	미취업지속	미취업에서 취업	
부인의 취업상태별 남편의 가사노동 빈도	식사· 요리준비	t1 시점	1.39	1.03	1.18	0.84
		t2 시점	1.19	0.96	1.03	1.21
		t값	1.054	1.312	2.587**	-1.952 [†]
	설거지	t1 시점	1.45	1.05	1.34	1.03
		t2 시점	1.18	0.99	1.18	1.25
		t값	1.427	1.136	2.808**	-1.082
	세탁	t1 시점	1.11	0.76	1.03	0.90
		t2 시점	0.91	0.70	0.90	1.00
		t값	1.310	1.491	2.568*	-0.629
	시장보기· 쇼핑	t1 시점	1.22	0.96	1.19	0.92
		t2 시점	1.04	0.96	1.07	1.02
		t값	1.381	0.072	2.611**	-0.559
	집안청소	t1 시점	1.72	1.39	1.71	1.35
		t2 시점	1.58	1.37	1.64	1.87
		t값	0.795	0.365	1.292	-2.513 [†]
남편의 취업상태별 남편의 가사노동 빈도	식사· 요리준비	t1 시점	1.07	1.00	1.22	1.39
		t2 시점	1.05	0.93	1.08	1.22
		t값	0.157	1.402	2.234 [†]	0.930
	설거지	t1 시점	1.17	1.01	1.41	1.58
		t2 시점	1.08	0.93	1.28	1.38
		t값	0.740	1.628	2.046 [†]	1.067
	세탁	t1 시점	0.85	0.76	1.06	1.21
		t2 시점	0.79	0.69	0.94	1.08
		t값	0.634	1.770 [†]	2.249 [†]	0.864
	시장보기· 쇼핑	t1 시점	1.05	0.99	1.18	1.22
		t2 시점	0.97	0.96	1.08	1.14
		t값	0.762	0.575	2.142 [†]	0.601
	집안청소	t1 시점	1.52	1.35	1.80	1.71
		t2 시점	1.42	1.34	1.73	1.92
		t값	0.775	0.370	1.130	-1.158

[†]p<.10, *p<.05, **p<.01, ***p<.001

4.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 7〉는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 및 부인과 남편의 t1 시점과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이 t2시점의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1에서는 부인의 취업상태 변화를, 모형2에서는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를, 모형3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취업 변화 전후의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취업 변화 후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효과는 부인의 t1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t2시점 토요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t2시점의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t2시점의 평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인의 t2시점의 토요일 가사노동이 부인의 t2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t2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t2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t2시점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남편의 t1시점의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t2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는 부인의 취업상태가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인의 ‘취업지속’은 ‘미취업지속’에 비해서 t2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을 감소

〈표 7〉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남편과 부인의 취업상태의 영향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					
	모형1		모형2		모형3	
	B	beta	B	beta	B	beta
부인연령	.901	.033 [†]	1.048	.038 [*]	.959	.035 [†]
남편연령	-.297	-.016	-.476	-.025	-.414	-.022
부인교육수준(ref: 초졸)						
중졸	-4.603	-.025	-3.850	-.021	-4.302	-.024
통제변수						
고졸이상	13.405	.062 ^{**}	14.172	.065 ^{**}	13.437	.062 ^{**}
남편교육수준(ref: 초졸)						
중졸	.387	.002	-.291	-.002	-.511	-.003
고졸	.527	.003	.272	.002	-.335	-.002
대졸이상	.932	.004	1.149	.004	.319	.001
성별역할 분업의식	3.968	.045 ^{**}	4.081	.046 ^{**}	4.417	.047 ^{**}
남편과 부인의 가사분담						
부인의 t1시점 평일 가사노동시간	.127	.128 ^{***}	.127	.128 ^{***}	.126	.126 ^{***}
부인의 t2시점 토요일 가사노동시간	.561	.578 ^{***}	.565	.582 ^{***}	.564	.581 ^{**}
부인의 t2시점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054	.061 [†]	.053	.060 [†]	.055	.061 [†]
남편의 t1시점 평일 가사노동시간	.027	.014	.016	.008	.019	.010
남편의 t2시점 평일 가사노동시간	.130	.060 ^{**}	.124	.058 ^{**}	.127	.059 ^{**}
남편의 t2시점 토요일 가사노동시간	-.256	-.108 ^{***}	-.261	-.110 ^{***}	-.262	-.111 ^{***}
남편의 t2시점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092	-.047 [*]	-.088	-.045 [*]	-.090	-.046 [*]
남편과 부인의 취업상태						
부인의 취업상태(ref: 미취업지속)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	1.667	-.018			-6.220	-.019
취업지속	-7.713	-.053 ^{**}			-5.540	-.038 [*]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	-3.780	-.008			-5.022	-.011
남편의 취업상태(ref: 미취업지속)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			.180	.001	1.940	.008
취업지속			-7.515	-.051 ^{**}	-4.863	-.033 [†]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			9.575	.028 [†]	11.410	.033 [†]
상수	-8.538		.816		4.410	
N		2,272		2,272		2,272
R ²		.499		.500		.501
Adj R ²		.495		.496		.496
F값		124.41 ^{***}		125.14 ^{***}		107.57 ^{***}

[†]p < .10, *p < .05, **p < .01, ***p < .001

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결과를 살펴 보면, 남편의 '취업지속'은 '미취업지속'에 비해서 t2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이 '미취업에서 취업'인 경우 t2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결과를 보면, 부인이 '취업지속'의 경우 '미취업지속'에 비해서 t2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취업지속'의 경우에도 t2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이 '미취업에서 취업'의 경우 t2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도 모형1과 모형2에서 나타난 결과는 상쇄되지 않았다.

성별역할 분업의식 역시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확인되었는데 성별역할 분업의식에 찬성할수록 t2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보면, 부인의 연령은 정의 효과, 부인의 교육 수준은 초졸에 비해서 고졸 이상일 경우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 및 남편의 교육 수준은 t2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 및 부인과 남편의 t1시점과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이 t2시점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공통적으로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t2시점의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t1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t2시점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t2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t2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t2시점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은 t2시점의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는 부인이 '취업지속'인 경우 '미취업지속'에 비해

서 t2시점의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는 t2시점의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부인이 '취업지속'일 경우 '미취업지속'에 비해서 t2시점의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고, 남편이 '취업지속'일 경우에는 '미취업지속'에 비해서 t2시점의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역할 분업의식 역시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공통적으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부인이 성별역할 분업의식에 찬성할수록 t2시점의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2시점의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8〉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남편과 부인의 취업상태의 영향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					
		모형1		모형2		모형3	
		B	beta	B	beta	B	beta
통제변수	부인연령	.220	.071	.192	.015	.244	.019
	남편연령	-.047	-.005	-.059	-.007	-.099	-.011
	부인교육수준(ref: 초졸)						
	중졸	-.007	-.001	-.460	-.005	-.157	-.002
	고졸이상	.927	.009	.226	.002	.691	.007
	남편교육수준(ref: 초졸)						
	중졸	-.031	-.001	-.268	-.003	-.148	-.002
	고졸	1.942	.024	1.560	.020	1.790	.023
	대졸이상	-.494	-.004	-.890	-.007	-.479	-.004
	성별역할분업의식	1.554	.038 [*]	1.626	.039 [*]	1.574	.038 [*]
남편과 부인의 가사분담	남편의 t1시점 평일 가사노동시간	.126	.139 ^{***}	.127	.139 ^{***}	.125	.137 ^{***}
	남편의 t2시점 토요일 가사노동시간	.641	.581 ^{***}	.640	.580 ^{***}	.639	.580 ^{***}
	남편의 t2시점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008	.009	.008	.009	.009	.010
	부인의 t1시점 평일 가사노동시간	.006	.014	.005	.011	.006	.012
	부인의 t2시점 평일 가사노동시간	.033	.070 ^{**}	.031	.067 ^{**}	.032	.070 ^{**}
	부인의 t2시점 토요일 가사노동시간	-.079	-.174 ^{***}	-.079	-.175 ^{***}	-.078	-.173 ^{***}
	부인의 t2시점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016	.040	.018	.043	.017	.041
남편과 부인의 취업상태	부인의 취업상태변화(ref: 미취업지속)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	.499	.003			.758	.005
	취업지속	2.111	.031 [†]			3.288	.048 [*]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	.465	.002			1.099	.005
	남편의 취업상태변화(ref: 미취업지속)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			.397	.003	-.406	-.003
	취업지속			-.902	-.013	-2.548	-.037 [†]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			-2.113	-.013	-3.045	-.019	
상수		-5.226		-.470		-2.051	
N		2,272		2,272		2,272	
R ²		.414		.414		.415	
Adj R ²		.410		.409		.410	
F값		88.49 ^{***}		88.30 ^{***}		76.06 ^{***}	

[†]p < .10, *p < .05, **p < .01, ***p < .001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가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부인이 취업을 지속하면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남편이 취업을 지속하면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를 보면, 부인의 경우 t1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t2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사노동이 단시간에 변동하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부인의 경우,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상쇄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동시에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편의 토요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과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상쇄적인 관계에 있음도 드러났다. 남편의 경우, t1시점의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t2시점의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부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시간의 증감이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평일과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상호보완적이 관계에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과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평일의 가사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인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퇴직 등에 의한 일자리 경험의 변화는 단순하게 직업으로부터의 이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등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개인이 취업상태 변화 전후로 생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그 이후의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를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단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년기 부부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 이후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 전후로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및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부인의 취업상태 변화와 가사노동시간에 주목하면, 부인이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했을 경우, 취업하고 있었던 t1시점에 비해서 취업하지 않고 있는 t2시점에서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인의 토요

일 가사노동시간의 증가가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이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했을 경우에 남편의 가사노동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부인이 노동시장에서 탈퇴하고 미취업 상태가 되었을 때, 부인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은 늘어나지만,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변함이 없는 결과였다.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와 가사노동시간에 주목하면, 남편이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상태로 변화했을 경우, 남편의 평일과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부인의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부인이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했을 경우,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었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부인의 가사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보완관계는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 확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남편이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할 경우,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 반면,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가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가용시간이 늘어난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사분담의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부인과 남편이 취업상태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사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가사분담의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년기 부부의 자신과 배우자의 취업상태 변화 특히 남편의 퇴직이 부인에게는 생활의 위기로 느껴지기도 한다(岡村, 2006).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가사분담의 개선을 통해 가용시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역할 구조를 재정립한다면 퇴직 등 노동시장 참여 변화가 노년기 부부관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년기의 부인과 남편의 가사분담과 부부관계 만족도의 관계는 선행연구(伊藤 & 相良, 2012; 田中 et al., 2018; 이주연·김득성, 2015)에서 밝혀진 바 있다.

둘째, 부인의 취업상태 변화와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에 주목하면, 부인이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했을 때, 부인의 '시장보기·쇼핑'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반면, 남편의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는 모두 감소경향을 보였다. 남편이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변화했을 경우,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 빈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Myers & Booth, 1996; 김영혜, 2004; Szinovacz & Harster, 1994)에서는 대체적으로 퇴직 후 남성의 여성적 가사에의 참여율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퇴직한 남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보다 많은 가사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적 가사에 한정된 것이 많고(김영혜, 2004), 부인이 퇴직을 하면 남편의 여성적 가사의 분담율은 낮아진다(Szinovacz, 2000)는 연구가 있다. 가사노동시간의 변화에서는 자신과 배우자의 취업변화로 인해 가용시간이 늘어난 사람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에서는 부인의 가용시

간이 늘어난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 항목별 빈도수가 줄어드는 점이 특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적 가사는 식사준비 및 설거지와 같은 수행 빈도가 높은 일상적 가사이고, 반면 남성적 가사는 집안 수리 등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예로 든 가사노동 항목이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임을 고려하면, 남편의 취업상태가 변화하여 가용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남편의 가사참여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시간의 조절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항목별 수행 빈도에 따른 가사분담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두 시점간(t1시점과 t2시점)의 비교를 통해 t1시점과 t2시점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가사노동시간이 부인과 남편 각각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2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는 부인의 t1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t2시점의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는 남편의 t1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변동은 일시적인 시점의 영향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퇴직을 계기로 남편이 가정생활에 관여하는 수준이 높아지는데(東京都老人総合研究所, 1991; 岩井, 2004; 松田, 2004; 伊藤 & 相良, 2012), 이를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서서히 부부의 대화 시간, 부부의 공동 활동 등을 늘릴 수 있는 생활패턴을 찾아나가는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넷째,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평일에는 부인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면 남편의 가사노동도 증가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면 부인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토요일, 일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평일에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부인과 남편의 토요일, 일요일의 가사노동은 부인과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과는 보완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의 가족 돌봄 시간이 남성의 가정내 역할 수행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부부의 가사노동이 부부 중 한쪽의 몫이 많아지면 다른 쪽의 부담이 저절로 줄어드는 관계가 아닐 가능성을 제시한 최유정 외(2019)의 연구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동시에 증가함을 제시한 김영란과 이진숙(20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를 토대로 일자리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함으로써, 남편이 노동시장에서 탈퇴함으로써 취업에 의한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만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것인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면 늘어난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만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할 것인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를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상태 변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취업상태 변화 전의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취업상태 변화 후의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즉 가사노동시간이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이 되는지, 지속적인 생활양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노년기에는 일자리 경험 중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가도 탈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거나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경우의 가사노동 변화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고려해서 고령자가 퇴직 후에도 사회활동 참가 등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서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개인 수준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재조정은 가져오지만 가사노동 항목별 수행 빈도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즉, 남편이 퇴직을 하는 경우, 가용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수행 빈도가 높은 식사준비 등의 가사노동 항목에의 참여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요리교실 등과 같이 생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습득이 동반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회를 확충하는 것은 고령자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보다 잘 통합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퇴직 후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요리교실을 통해서 요리 기능을 취득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서 식사준비 영역의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부부의 대화시간이 늘어나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고 있었다(서울매일신문, 2019). 이처럼, 가사노동 참여는 고령자 개인의 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만 아니라 또한, 노년기의 부부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노년기의 부부는 직업역할과 부모역할이 축소하는 한편, 가정생활에 있어서 배우자 역할이 보다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부부의 가사분담 및 역할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은 노년기 부부관계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노년기의 취업상태 변화를 파악하기는 하였으나,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각 조합에 해당하는 대상자수가 매우 작아지는 자료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남편과 부인의 취업상태 변화를 각각 분석에 이용하였다. Szinovacz(2000)는 부인보다 먼저 퇴직한 남편은 자신의 퇴직 후에는 가사노동이 증가하는데, 이후 부인이 퇴직하게 되면 남편의 가사노동은 줄고 부인의 가사노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노년기의 남편과 부인의 가사시간에는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장 참여 및 탈퇴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乾, 2015), 남편은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였는데, 부인은 계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면, 보다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년기의 삶의 요소로 노동(취업변화), 가족생활(가사노동, 가계, 가족관계), 생활시간(여가생활), 지역사회 활동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노동 및 가족생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취업변화와 여가생활, 취업변화와 지역사회 활동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년기의 삶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후속연구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 1) 김수진·고선강(2018).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가사노동 참여와 공유 활동이 부부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2), 65-84.
- 2) 김영란·이진숙(2020). 혼인상태별 가사노동시간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2019년 여성가족패널 조사, 181-207.
- 3) 김영혜(2004).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유배우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영향에 대하여. 한국인구학, 27(1), 1-30.
- 4) 김주희·이기영·최현자(2009). 은퇴자의 은퇴 이후 생활 수준 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73-92.
- 5) 김효정(1996). 미국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4(3), 75-87.
- 6) 서울매일신문(2019. 6.20). 부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모작 아버지 요리교실 개강 "오늘은 요리 배우는 날, 저녁은 내가 할게".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295>.
- 7) 안미영(2017). 고령화와 젠더 불평등: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93(2), 7-34.
- 8)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9) 이미숙·유안진(1997).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수행. 대한가정학회지, 35(1), 205-219.
- 10) 이주연·김득성(2015). 남편의 은퇴 이후 중노년기 부부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2), 179-193.
- 11) 이창순(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0(2), 29-54.
- 12) 이현아·김주희(2021). 세대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71-86.
- 13) 최유정·최미라·최셋별(2019). 가정 내 역할 수행 및 돌봄 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50(1), 1-28.
- 14) 허수연(2008). 맞벌이 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15) 허수연·김한성(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 16) 伊藤裕子(2015). 夫婦関係における親密性の様相. 発達心理学研究, 26(4), 279-287.
- 17) 伊藤裕子, 下仲順子 & 相良順子(2009). 中年期における夫婦の関係と心理的健康—世代比較を中心に—一文京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 10, 191-204.
- 18) 乾順子(2015). 高齢期の夫婦の家事分担. 家計経済研究, (105), 56-67.
- 19) 不破麻紀子(2014). 世帯に見る家事分担. 社会科学研究, 65(1), 51-70.
- 20) 伊藤裕子 & 相良順子(2012). 定年後の夫婦関係と心理的健康との関連—現役世代との比較から—. 家族心理学研究, 26(1), 1-12.
- 21) 平山順子 & 柏木恵子(2001). 中年期夫婦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態度—妻と夫は異なる?, 発達心理学研究, 12, 2216-227.
- 22) 岩井紀子(2004). 高齢期の夫婦における夫の家事参加. 渡辺秀樹・稲葉昭英・嶋崎尚子編, 現在家族の構造と変容. 293-309. 東京大学出版会.
- 23) 木下栄二(2004). 結婚満足度を規定するもの. 渡辺秀樹・稲葉昭英・嶋崎尚子編, 現在家族の構造と変容. 277-291. 東京大学出版会.
- 24) 松田茂樹(2004). 男性の家事参加. 渡辺秀樹・稲葉昭英・嶋崎尚子編, 現在家族の構造と変容. 175-189. 東京大学出版会.
- 25) 岡村清子(2006). 定年退職と家庭生活. 日本労働研究雑誌, 550, 67-82.
- 26) 東京都老人総合研究所編(1991). 定年退職に関する長期的研究(3)—職業・生活の変化についての追跡調査, 東京都老人総合研究所調査報告書.
- 27) 関根美貴(2017). 高齢者の生活時間に影響を与える要因に関する一考察—女性について—Bulletin of Aichi Univ. of Education, 66, 75-82.
- 28) 久保桂子(2017). 共働き夫婦の家事・育児分担の実態. 日本労働研究雑誌, 689, 17-27.
- 29) 橋本有理子(2006). 老年期における家族的役割, 社会的役割と精神的健康との関連性に関する研究. 関西福祉科学大学紀要, 9, 117-130.
- 30) 国立社会保障 & 人口問題研究所(2008). 2008年社会保

- 障・人口問題基本調査第5回全国家庭動向調査結果の概要.
- 31) 若林満, 松浦均, 松浦いね & 三浦三郎(1991). 定年退職者の生きがい感の規定要因に関する研究. 経営行動科学, 6(1), 35-47.
- 32) 世界銀行(2015). 『長く幸せな人生を：東アジア・大洋州地域の高齢化』報告書.
- 33) 前田信彦(2003). 高齢期における多様な働き方とアンペイド・ワークへの評価—男性定年退職者の分析—. 国立女性教育会館研究紀要, 7, 21-31.
- 34) 田中真理, 鎌田晶子 & 秋山美栄子(2018). 高齢期の家事行動と夫婦関係が主観的 well-being に与える影響—配偶者役割の意味づけを媒介として—. 高齢者のケアと行動科学, 23, 22-34.
- 35) Erin Hy-Won Kim & Chang jun Lee(2018). Division of domestic labor over retirement among middle-aged older couples in Korea, 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115-139.
- 36) Iwai, N.(1998). The Decision of Household Labor in Japan: Gender Inequality of Time Use and Factors Affectio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大阪商業大学論集, 110, 107-134.
- 37) Myers M. & A. Booth(1996). Men's Retirement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17, 336-357.
- 38) Szinovacz, M. & Harpster, P.(1994). Couple's employment/retirement statu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task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9, 125-136.
- 39) Szinovacz, M.(2000). Changes in Housework after Retirement: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78-92.

- 투 고 일 : 2021년 12월 26일
- 심 사 일 : 2022년 01월 18일
- 게재 확정 일 : 2022년 01월 28일